



제주지부 일본방문 시찰단 출국
—일본食鳥협회초청, 지난 2월28일—

본회 제주지부 (지부장 : 김철수) 는 사단법인 일본식조 (食鳥) 협회의 초청으로 일본 양계산업및축산업계 방문 시찰단을 파견했다

지난 2월28일부터 3월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방문 시찰단은 김철수 지부장의 8명으로 구성 일본의 양계산업과 농촌축산업계를 돌아보게 된다.

이번 방문 시찰단은 양계산업 기술교류를 통해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상호 관심사의 이해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찰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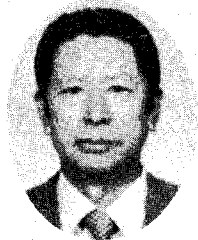
단 장 : 김철수 (제주지부 지부장)

부단장 : 고경무

단 원 : 강태호, 현영선, 김항주, 김태열,
 유덕윤, 김일희, 김두수,



(김철수 단장)



(고경무 부단장)

감별분과, 회원회의 개최 및
분과위원 선출

— 2월 28일 본회 회의실에서 —

본회 감별분과는 지난 2월28일(토) 오후 본회 회의실에서 감별분과 회원회의를 개최하고 분과위원 선출등 감별업계 제반문제를 토의했다.

조성철 현 분과위원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임 감별분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신임 위원장에는 정해인씨가 참석회원의 만장일치로 피선 되었다.

또한 신임 분과위원을 선출하였는데 그 단원은 다음과 같다.

이수일, 정원준, 김수환, 고덕수

강운식, 박무증, 이 송, 박도희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의 감별사들이 한덩어리로 굳게 단합하여 감별료의 적정선 유지, 해외 감별사 파견창구의 일원화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현재의 자격 시험규정 강화등 제반 금년도 업무계획은 신임 분과위원회에 위임키로 하였으며 신임 정해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감별사의 권익을 위해 소신있게 일하겠으며 특히 상호 화합 단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경남지부 정기총회 성료

— 지부장에 김종경전 지부장 유임 —

본회 부산경남지부 (지부장: 김종경) 는 1981년도 지부 정기총회를 지난 2월 21일 (토) 오후 서면 본회 지부 지하다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임 임원들의 임기 만료로 새로운 임원의 개선이 있었는데 지부장은 김종경 전지부장이 유임되었으며 부화분과위원장에는 주양수씨, 채란분과 위원장에는 우원현씨, 육계분과위원장에 정재환씨를 각각 선임하고 이 밖에 새로운 임원에 대한 선출이 있었다.

또 총회에서는 지난해 지역 양계업계를 위해 수매비축사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축협 중앙회 부산출장소 이수영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있었다.



(김종경 부산·경남지부장)



(박인수 전북지부장)

전북지부, 전투경찰에 위문품 전달

— 구정기해 지역 양계인 이름으로 —

본회 전북지부 (지부장: 박인수) 의 임원 일동은 지난달 구정을 기해 해안선 경계임무에 여념이 없는 지역 전투경찰대에 전북도내 양계인의 이름으로 달걀 1만 1천 1백개를 전달했다.

차지부장은 도경에 달걀을 전달하는 자리

에서 「양계인들의 조그마한 정성이 전경대원들의 사기양양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채란위문품전달은 본회가 매년 실시하는 군관민의 협조로 자주국방의 의지를 다지는 군경에게 「채란보내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실시된 것이다.

채란분과회의 본회 개최

— 지난 3월 6일 회의실에서 —

지난 3월 6일 본회회의실에서 김광옥부회장의 주재하에 채란분과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계의 당면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채란분과위원을 선정했다.

김광옥 (위원장, 동두천 분회)

민덕기 (덕일농장) 한명복 (교하농장)

김갑수 (경기 강화) 권태웅 (안양분회장)

박재용 (경기 양주) 이한주 (전북지부)

김태환 (전남지부) 박수곤 (경북지부)

우원현 (부산, 경남지부)

부화분과 회원회의 개최 예정

— 3월 26일, 본회 회의실 —

본회 부화분과는 오는 3월 26일 부화분과 회원회의를 개최하여 분과위원선출과 당면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금년도 처음 개최되는 부화회원 회의에서는 현 업계의 문제점등이 다양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로 부화업 전망등 상호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부화분과 회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침체된 업계를 타개하는데 기탄없는 좋은 의견을 나누어 주길 바란다.